

후기 아동기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부모 방임과 학대 경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최 수 빈

유 미 숙[†]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아동기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부모 방임과 학대 경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CPS)의 초1 패널 자료 중 4차년도에서 7차년도(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후기 아동기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부모 방임과 학대 경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의 수준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임과 학대는 학교적응에 대한 동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임은 학교적응에 대한 지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대의 경우 지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는 후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학교적응, 방임, 학대, 동시 및 지연효과, 잠재성장모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 E-mail: msyookr@gmail.com

초등학교는 사회화라는 과업의 발달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집단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또래와의 소속감을 경험하며 교사의 지도를 통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김혜금, 2014).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입시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영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특히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에 학교 적응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alton & Morrison, 2000).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에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¹⁾’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를 통해 발달 경향성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제공, 학생 및 학부모 면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8). 학교부 적응은 추후 청소년 비행이나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김혜미, 오인수, 2014)이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적응 수준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연구해왔고, 자아탄력성(기민희, 김미숙, 2014), 자기효능감(정윤정, 임선아, 2013)과 수면 문제(Williams, Nicholson, Walker, &

Berthelsen, 2016)와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Galton & Morrison, 2000), 다문화가정(최성보, 2011), 빈곤가정(김수린, 유조안, 2014; Ackerman, Brown, & Izard, 2004), 부모의 양육태도(김춘경, 조민규, 최명숙, 김지호, 2013; 박성혜, 윤종희, 2013; Awoyemi & Dombo, 2016)와 같은 가정환경 요인, 교사들의 격려반응(강해련, 오익수, 2008)과 같은 학교 환경 요인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부모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대할수록 큰 어려움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반면, 방임과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대하는 경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령, 이재연, 2011; 정은희, 김혜미, 2013; Carmody, Haskett, Loehman, & Rose, 2015; Emery & Yang, 2015; Weiss & Fantuzzo, 2001).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7)에서 밝힌 유형별 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보다 세부적인 방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임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

1)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CPSQ-II(Child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Screening Problems Screening Questionnaire, Second Version) 척도를 사용하며 온라인/서면검사로 학부모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AMPQ-III(Adolescent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Problems Screening Questionnaire, Third Version) 척도를 사용하며 학생 개인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교육부, 2018).

는 부모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거나, 아동에게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건강관리 소홀 등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으며, 비행 방조 및 애정소홀 등 무관심한 상태를 말한다(박덕숙, 2002). 방임은 소리 없는 학대(silent abuse)라고 불릴 정도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기존에는 그 심각성에 비해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배화옥, 강지영, 2015). 그러나 최근에는 방임과 학대를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손지아, 김선희, 2017; 신경미, 황순택, 2016; 좌현숙, 2018; 최수빈, 2018).

지금까지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주로 횡단 연구였기 때문에 특정시점에서의 관계만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이후 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변인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발달적 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단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Galton & Morrison, 2000).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규명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안혜진(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경험한 방임 경험이 초기의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관한 종단 관계를 검증한 고연경과 이미숙(2016)의 연구에서는 매 학년 경험한 부

모의 학대가 그 다음 해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대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방임 및 학대 경험의 영향력이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까지의 학교적응의 변화를 검증하고 방임 및 학대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규명한 연구에서는 단일 시점의 방임 및 학대가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 모형을 설정하여 탐색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 모형은 횡단 설계와 종단 설계의 장점을 갖춘 모형으로 예측 변인이 동일 시점의 결과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후 시점의 결과 변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 또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자 교과과정의 내용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고(이희정, 조윤주, 2010), 중학교로의 전이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환경과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등 학교적응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적응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관련 변인의 탐색 및 개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발달 궤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종단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형으로 Meredith와 Tisak(1990)이 소개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 분석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잠재성장모형 분석방법에서는 먼저 무

조건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적응의 발달궤적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건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 시간 의존적 변수인 방임과 학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부모 방임과 학대 경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초1 패널 중 4차에서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1 패널의 4차년도 참가자 기준으로 2,119명(남학생 1,093명, 여학생 1,0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방임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4문항을 활용하였다. 방임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으며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경험을 많음을 의미한다. 방임 항목의 연도별 Cronbach's α 값은 .75(초4), .69(초5), .70(초6), .76(중1)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해당 연도별로 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학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4문항을 활용하였다. 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경험을 적게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역코딩 처리하여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학대 항목의 연도별 Cronbach's α 값은 .83(초4), .80(초5), .80(초6), .87(중1)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해당 연도별로 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학교적응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척도로 학습 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 변인마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와 같은 ‘학습활동’,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와 같은 ‘학교규칙’,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와 같은 ‘교우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와 같은 ‘교사관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역코딩 처리하여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총 20문항 중 역코딩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2문항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역코딩 처리하지 않았음). 학교적응 항목의 연도별 Cronbach's α 값은 .91(초4), .90

(초5), .91(초6), .90(중1)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해당 연도별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수준의 종단적 변화와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개인의 발달 궤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종단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형으로 Meredith와 Tisak(1990)에 의해 소개되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단계로 학교적응의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및 2차함수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 분석단계로 학교적응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시간의존변수인 방임 및 학대를 투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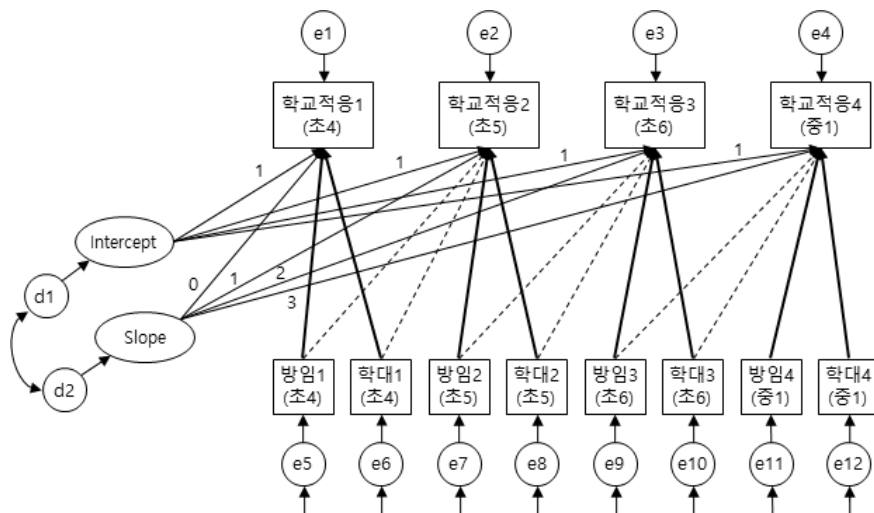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차년도에서 7차년도(초4~중1)까지 반복 측정된 방임 및 학대가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23.0과 AMOS 23을 사용하였고 종단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 변인에 대한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은 감소하고 방임과 학대는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시점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 변인의 왜도는 ± 2 미만, 첨도는 ± 3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 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1.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	M(SD)	왜도	첨도
학교적응1(초4)	3.25(.44)	-.29	-.33
학교적응2(초5)	3.21(.41)	-.07	-.48
학교적응3(초6)	3.17(.42)	-.06	-.36
학교적응4(중1)	3.15(.41)	-.06	-.48
방임1(초4)	1.62(.56)	.75	.55
방임2(초5)	1.50(.49)	.70	-.21
방임3(초6)	1.58(.53)	.54	.05
방임4(중1)	1.67(.52)	.21	-.67
학대1(초4)	1.67(.67)	1.44	2.12
학대2(초5)	1.63(.61)	1.44	2.41
학대3(초6)	1.56(.58)	1.37	2.28
학대4(중1)	1.58(.63)	1.45	2.32

학교적응의 무조건모형

학교적응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및 2차함수모형을 분석하고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적합도 검증에 있어 χ^2 (Chi-square statistic)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ASEA를 적합도 검증에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

표 2. 학교적응의 변화에 대한 무조건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224.293(8)***	.864	.891	.096
선형변화모형	16.815(5)**	.988	.994	.032
2차함수모형	28.390(5)***	.977	.988	.045

*** $p < .001$, ** $p < .01$

표 3. 학교적응 선형변화모형의 초기치과 변화율

모수	M(SE)	Variance(SE)
초기치	3.242(.009)***	.117(.006)***
변화율	-.031(.002)***	.005(.000)***
초기치-변화율 상관계수	-.563***	

*** $p < .001$

이상, RMSEA는 .10 이하이면 보통, .08 이하이면 양호,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우종필, 2012). 모형을 비교한 결과, 선형변화모형의 TLI, CFI, RMSEA가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3은 선형변화모형에서 나타난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학교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은 각각 3.242($p < .001$)와 -.031($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하여 학교적응 수준의 평균이 3.242라고 보았을 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율의 평균인 -.031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4년간 학교적응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러 가설적인 조건변인들을 투입하여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교적응의 조건모형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시간의존변수인 방임과 학대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들을 비교하였다. 먼저 모형 1은 방임과 학대가 해당 학년과 이후 학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고(동시지연효과), 모형 2는 방임과 학대가 해당 학년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동시효과). 마지막으로 모형 3은 방임과 학대가 이후의 학년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지연효과).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모형 2(동시효과), 모형 3(지

표 5. 최종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수	M(SE)	Variance(SE)
초기치	3.976(.027)***	.068(.004)***
변화율	-.028(.014)*	.007(.001)***
초기치-변화율 상관계수	-.588***	

*** $p < .001$, * $p < .05$

표 4. 학교적응의 변화에 대한 조건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chi^2(df)$	TLI	CFI	RMSEA
1. 동시지연효과	230.717(23)***	.897	.970	.062
2. 동시효과	322.752(29)***	.884	.957	.066
3. 지연효과	2055.478(31)***	.253	.703	.167

*** $p < .001$

표 6.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 및 학대 경험의 동시지연효과

경로	구분	B	β	SE	C.R.
방임1(초4)→학교적응(초4)	동시효과	-.361	-.466	.014	-26.597***
방임2(초5)→ 학교적응(초5)		-.292	-.361	.014	-21.275***
방임3(초6)→ 학교적응(초6)		-.303	-.387	.015	-20.674***
방임4(중1)→ 학교적응(중1)		-.289	-.376	.014	-20.068***
방임1(초4)→ 학교적응(초5)	지연효과	-.087	-.123	.013	-6.659***
방임2(초5)→ 학교적응(초6)		-.078	-.092	.015	-5.152***
방임3(초6)→ 학교적응(중1)		-.066	-.087	.015	-4.374***
학대1(초4)→ 학교적응(초4)	동시효과	-.087	-.134	.012	-7.552***
학대2(초5)→ 학교적응(초5)		-.083	-.128	.012	-6.821***
학대3(초6)→ 학교적응(초6)		-.080	-.112	.014	-5.608***
학대4(중1)→ 학교적응(중1)		-.087	-.137	.012	-6.974***
학대1(초4)→ 학교적응(초5)	지연효과	-.019	-.033	.012	-1.686
학대2(초5)→ 학교적응(초6)		-.016	-.024	.013	-1.223
학대3(초6)→ 학교적응(중1)		-.015	-.022	.014	-1.048

*** $p < .001$

연효과)보다 모형 1(동시지연효과)의 TLI, CFI, RMSEA 값이 양호한 적합도로 나타나 모형 1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5는 최종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방임 및 학대 경험의 동시지연효과

다음으로 최종모형에서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방임과 학대를 투입하였으며 예측력을 학년별로 확인하였다.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 및 학대의 동시지연효과는 표 6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간에 걸친 학교적응의 변화를 확인하고, 학교적응의 변화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방임과 학대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4에서 중1까지의 학교적응 수준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부터 중1까지 학교적응 수준이 감소했다는 선행 연구(이은수, 이수용, 홍세희,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초4부터 초6까지(강유경, 2015;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초4부터 중2까지(이희정, 조운주, 2010)의 학교적응 변화를 검증한 연구에서 학년 변화에 따라 학교적응의 감소 경향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요인에 학습활동이 포함됨을 고려해 본다면 초등학교 4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며 교과과정의 내용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고(이희정, 조운주, 2010),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기존과는 다른 환경과 체계에 적응해야 하는 이유로 불안감을 경험하는 등 학교적응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Galton & Morrison, 2000)는 것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확인했을 때는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4에서 중1까지의 학교적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적응 수준에 대한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임과 학대를 주요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는 학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경험하는 방임이 동일 시점의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해의 학교적응에도 영향력이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좌문경(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좌문경(2009)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임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검증하였고 방임을 높게 경험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방과후 일정 등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관심을 가지는 등 적절한 감독을 하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높은 학교적응력이 예측되었음을 보고한 연구(김영숙, 조한익, 2017;

이정민 외, 2015; 조연희, 이주연, 2015)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의 지연효과에 대해서는 윤지영(2016)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윤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초2 시기와 초3 시기의 방임 경험이 이후 년도인 초3 시기와 초4 시기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것으로 방임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학년이 바뀐 후에도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의 동시효과와 지속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속효과보다는 동시효과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배화옥(2007)은 미국 플로리다주 아동학대긴급신고체계(Florida Abuse Hotline Information System)에 소장된 전산자료(1997년 1월에서 2002년 5월까지, 총 5년 5개월간)로 방임과 학대에 대한 재발생 위험확률 시기를 확인하였는데, 방임과 학대 모두 4~6개월 사이에 재발될 위험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방임이 의심될 때 이른 발견 및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방임의 경우, 학교적응에 미치는 방임의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 중에서 초4 시기 방임의 영향력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7)에서는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을 조사했을 때, 만 7~9세 연령대의 아동들에게서 제일 높은 비율로 방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방임과 관련해서는 초4에서 중1까지의 시기 중 상대

적으로 이른 초4 시기의 아동들에 주목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적응에 대한 학대의 동시효과는 학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 시점의 학대 경험이 학교적응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과 학교생활의 관계를 검증한 정은희와 김혜미(2013)의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이 동일 시점의 낮은 학교적응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힌 학대의 동시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진영, 박용순, 염철기, 최성숙, 2015)에서도 학교적응에 대한 학대의 동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낮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 중의 하나인 공격성을 초4부터 중1 시기까지 확인하였을 때, 학대 경험은 당해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박애리, 2014)가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학대의 경우, 학교교육에 대하여 중1 시기에 경험하는 학대의 동시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7)에서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을 보면, 학대의 여러 유형들(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은 만 13~15세 연령대의 아동들에게서 제일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대와 관련해서는 초4에서 중1까지의 시기 중 특히 중1 시기의 아동들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대의 경우 방임과 달리 학교적응에 대한 지속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대 경험의 신호가 보일 경우보다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한 안혜진(2016)과 차윤님(2018)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안혜진(2016)은 중2에서 고1까지의 학대 초기치가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우울이라는 변인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차윤님(2018)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대 경험의 초기치가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학대가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이후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즉, 학대가 학교적응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두고 우울과 공격성과 같은 정서관련 변인을 매개로 하여 이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후 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여러 변인들을 다루는 종단 연구를 통해 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적응을 도모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4에서 중1까지의 학교적응 수준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Galton과 Morrison(2000)은 전이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학교에서 실

천하고 있는 여러 행사와 제도(마지막 학기에 진학할 학교에 하루 동안 방문해 보는 것 등)를 소개하며 특히 전이 시기에 교과과정의 연속성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을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이희정, 조운주, 2010),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수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많은 아동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방임에 대한 보호자의 문제인식이 부족하여 방임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배화옥, 강지영, 2015) 방임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방임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부모, 맞벌이가정 등 가정의 특성 상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학대의 경우, 특히 본 연구에서 중1 시기의 학대 경험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결과(Burchinal, Roberts, Zeisel, & Rowley, 2008)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로의 전이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발달 특성, 양육태도 등이 내용이 포함된 필수 교양강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과 학대의 동시효과 및 지속효과를 각각 밝힘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개입할 수 있는 방안과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방임이나 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일회성의 경험과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방임과 학대를 초기에만 경험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4에서 중1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방임 및 학대의 경험은 매우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히 방임의 경우 연령대 별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연령대 별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연령대 별로 전반적인 학교적응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임 및 학대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초1 패널 자료(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까지)를 검토해보면 저학년 시기와 고학년 시기에 활용한 문항들에서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춘기이자 전이기에 해당되는 초4에서 중1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예측하는 방임과 학대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효과 및 지속효과로 나누어 중단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확장하였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부모 보다는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전히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임 및 학대 관련 후속 중단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경 (2015). 초등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해련, 오익수 (2008). 교사의 격려반응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7(2), 131-140.
- 고연경, 이미숙 (201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중단 관계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64-264.
- 교육부 (2018). 201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 권재기, 정미경 (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중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기민희, 김미숙 (2014).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585-612.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린, 유조안 (2014). 빈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 궤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9, 153-175.
- 김영숙, 조한익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1(3), 529-561.
- 김춘경, 조민규, 최명숙, 김지호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또래애착의 중재효과 분석: 정상아동과 비만아동의 비교. 놀이치료연구, 17(1), 1-15.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1), 11-19.
- 김혜미, 오인수 (2016).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중등교육연구, 64(4), 951-977.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덕숙 (2002).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불안, 공격성 및 학교 적응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배화옥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아동권리연구*, 11(3), 389-411.
- 배화옥, 강지영 (2015).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보건사회연구*, 35(1), 455-474.
- 손지아, 김선희 (2017).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관계: 부모, 또래 및 교사요인의 영향. *아동학회지*, 38(6), 1-15.
- 송미령, 이재연 (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송진영, 박용순, 염철기, 최성숙 (2015). 부모의 청소년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의존도와 인터넷이용빈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30, 57-85.
- 신경미, 황순택 (2016). 학대·방임,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7(4), 115-147.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안혜진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종단연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 이성희, 윤지영 (2016).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461-480.
- 이은수, 이수용, 홍세희 (2016).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59-85.
-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4), 91-110.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정윤정, 임선아 (2013).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7(4), 853-873.
- 정은희, 김혜미 (2013). 학대경험이 초등학교생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의 매개효과와 성차검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47-69.
- 조연희, 이주연 (2015).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1), 61-74.
- 좌문경 (2009).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동광*, 105, 71-144.
- 좌현숙 (2018). 아동기 사회적 위축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7(2), 257-271.
- 차윤님 (2017).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학대 경험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지역 사회인식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9-130.
- 최수빈, 유미숙 (2018).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30(1), 63-8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학업중단 청소년*

- 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3-R18). 1-368.
- 허효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kerman, B. P., Brown, E. D., & Izard, C. E. (2004). The relations between contextual risk, earned incom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04-216.
- Awoyemi, A. E., Dombo, D. O. (2016).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secondary school adolescents in Bayelsa state, Nigeria. *IFE Psychologia*, 24(2), 10-16.
- Burchinal, M. R., Roberts, J. E., Zeisel, S. A., & Rowley, S. J. (2008).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4(1), 286-292.
- Carmody, K. A., Haskett, M. E., Loehman, J., & Rose, R. A. (2015). Physically abused children's adjustment at the transition to school: Children, parent, and family fact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4), 957-969.
- Emery, C., & Yang, H. R. (2005). The effects of exposure to neglect on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youth activity. *Social Science Research*, 39(1), 1-27.
- Garton, M., & Morrison, I. (2000). Concluding comments. Transfer and transition: The next step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4), 443-449. [http://doi.org/10.1016/S0883-0355\(00\)00027-6](http://doi.org/10.1016/S0883-0355(00)00027-6).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Weiss, A. D. G., & Fantuzzo, J. W. (2001). Multivariate impact of health and caretaking risk factor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first grad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2), 141-16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CA.
- Williams, K. E., Nicholson, J. M., Walker, S., & Berthelsen, D. (2016). Early childhood profiles of sleep problems and self-regulation predict later school adjust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2), 331-350.

원 고 접 수 일 : 2018. 10. 24.

수정 원고접수일 : 2019. 02. 01.

최종 게재 결정일 : 2019. 04. 26.

Th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Abuse on Longitudinal Changes in Late Childhood School Adjustment

Subin Choi

Mee Sook Yo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abuse on longitudinal changes in late childhood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utilized survey data from the fourth through seventh iterations of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tudy conducted on fourth-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decreased gradually. Second, both neglect and abuse had concurren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Third, neglect had lagged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but abuse did not. The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and support children who have suffered neglect or abuse adjust to school during late childhood.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neglect, abus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latent growth modeling